

소개 페이지 가기

최신뉴스

주제별뉴스

- 보건 정책

- 병 · 의원

- 약사 & 제약

- 식품 · 건강

- 의료기기 · IT



“미프진 위험하지 않아, 판매 금지가 더 위험”

네덜란드 의사 레베카 고퍼츠 “약물에 의한 안전한 인공유산 선택할 수 있어야”

연론사 헬스코리아뉴스



입력 : 2018.07.06 11:51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낙태 시술 금지가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낙태 약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 간담회’에서 ‘Women on Waves, Women on Web’ 설립자인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중절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여성들이 ‘약물에 의한 안전한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퍼츠는 “전 세계에서 해마다 5600만명이 임신중절을 하며, 전체 임신의 25%는 임신중절로 끝난다”며 “상당수 국가에서 임신중절은 합법화됐다. 네팔,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모잠비크, 우루과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임신중지가 불법인지에 상관없이 임신중지를 행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신중지가 불법인 국가에서 임신중지를 행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피임약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신중지 약물은 WHO에서 ‘필수 약물’로 지정돼 있다”며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고, WHO 연구에 따르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 부담이 임신중절수술에 비해 적다.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은 여성을 공포로 몰아넣고 고립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프진 사용에 대해 “(약 사용은) 출혈이 많은 일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합병증은 매우 드물며, 여성 스스로 자연유산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약물적 유산을 할 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의사를 찾아갈 수 있고, 자연 유산과 약물적 인공유산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방법은 거의 동일하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리스톨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은 모든 나라에 제공돼야 하지만 미소프리스톨의 경우 한국은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퍼츠에 따르면 약물적 유산의 경우 임신 12주까지 집에서도 가능하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 두 약을 혼합 복용했을 시 성공률은 99%에 달하고 미소프리스톨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성공률은 94%다.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로 확인 받은 여성만 처방전으로 구입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합법적으로 허용된 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 1 CJ헬스케어, 국산 신약 30호 선보인다
- 2 한국유니온제약, 26일 코스닥 상장...신..
- 3 대웅제약, 'NABOTA SEOUL 2018' 심포지..
- 4 '간호사 김영미' 수필집 발간
- 5 [메디포드] 중앙대병원, 간호·간병통합 ..
- 6 신약 내놓은 CJ...케이캡정 허가
- 7 고통스런 요로결석 물만 많이 마셔도 예..
- 8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
- 9 유니아이티 베트남 공장, PIC/s GMP 추가..
- 10 대웅제약, NABOTA SEOUL 2018 성료

- 의료행사** 전체보기 >
- [07/07]내과전공의를 위한 Hands-on Progr..
 - [07/14]제35회 한국심초음파학회 워크숍
 - [07/20]강북삼성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
 - [08/08]2018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의료/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건강 뉴스레터 신청

- 칼럼** 전체보기 >
- 행동과학·심리학... 보청기 효과 높이는 의의의..
 - 지방흡입 부작용 '홍살', 제대로 관리해야 처..
 - 목디스크, 경혈 풀어주는 약침 효과적... 생활습..
 - 노출의 계절, 발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벤트 · 알립니다 < >

- 헬스조선 좋은요양병원을 소개 합니다
- [팻진]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 건강상담** 전체보기 >
- B형간염 예방접종 관련 문의
 - 회전근개통증에 봉침 맞아도 되나요?
 - 임플란트시술후 이상 합니다.
 - 거북목(일자목)은 도수치료 효과가 있나요?
 - 수습화강, 두한죽염에 관하여



레베카 고프츠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절약물 사용의 안전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 원장)은 지난 3월 연구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미프진은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유산 유도약으로, 성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한다.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킨 후 자궁 수축을 통해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심각한 출혈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 FDA도 미프진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프진 복용 3일차와 14일차에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녹색병원 산부인과 윤정원 의사는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은 2010년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 해 약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박수현 기자 admin@hkn24.com

* Copyright ©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건강 전문가를 위한 헬스케어N 뉴스레터 구독신청

실시간 뉴스 · 한국유니온제약, 26일 코스닥 상장...·신공장 · 어깨 통증 등 진통효과 우수한 스테로이드 주.

보건정책	전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청과궤 “어린이 밀가루 체험 놀이, ..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중위소득 150%이.. 	
약사&제약	전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병원 중심으로 불었던 맞스 열풍 .. · 일양, '장용성 캡슐' 수퍼오메가1080.. 	
병 · 의원	전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유니온제약, 26일 코스닥 상장..." · 유사나, 한화이글스 불꽃응원 이벤트 .. 	
식품 · 건강식	전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멘스, 신기술 탑재 MRI '마그네툼 .. · 환자 돌보고 원격진료 가능한 로봇 등.. 	
의료기기 · IT	전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노선에 기내식 제공한다던 아시아.. · PLS 주요 적률별 맞춤형 교육 · 홍보 확.. 	
기타	전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무호흡증' 치매 발병 위험 높아 · 어깨 통증 등 진통효과 우수한 스테로.. 	

헬스조선 건강이 꽃피는 나무 BEST 전체보기+

 <p>액티브시니어 멀티비타민 비타민과 미네랄 코엔자임Q10, 루테인</p>	 <p>시니어밀플러스 마른 사람 체중증가를 위해!</p>	 <p>쾌변 아침마다 시원하게~ 차전자피 식이섬유</p>	 <p>모닝 다이어트 마심&빠짐 마시는 다이어트 마테&레몬알칼리</p>
--	---	---	---

LINKS : [기관](#) [단체](#) [병원](#) [제약](#) [학회](#) [약국](#) [언론](#) [포털](#) [의료기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회귀의약품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양양의동산관리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한식재단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기기증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연금공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	대한약사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수정요청 : hnews@chosun.com				+ 더보기

회사소개 구독신청 광고안내 고객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저작권규약 헬스뉴스(RSS) 건강칼럼(RSS) 헬스케어N(RSS)

헬스케어N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헬스조선 헬스케어N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헬스조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업무동 1 문의 02-724-7600 | FAX 02-722-9339

Copyright HEALTHCHOSUN.COM All rights reserved